보험 '절판 마케팅' 기승…"꼼꼼히 따져보세요"

하반기 보험료 인상 채비
인상전 가입 하세요 권유
불완전 판매 등 피해 우려

보험사의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마케팅 기법인 '절판 마케팅'이 다시 활발해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지난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최근 들어 "보험사들이 손해율을 만회하고자 보험료 인상을 서두르고 있다"며 보험료가 오르거나 혜택이 줄어들기 전에 가입해야 한다고 권유하고 있다.

생명보험사들이 지난달 예정이율을 줄줄이 낮춘 데 이어 손해보험사들도 삼성화재(4월), 현대해상(6월) 등 대형사들을 필두로 6~9월 사이 예정이율을 0.25%포인트씩 낮출 채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정이율은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 역할을 하는데 0.25% 포인트 낮아지면 보험료는 4~10% 오르게 된다. 또 금융당국이 9월부터 실손의료보험에서 비급여의료비의 자기부담금을 10%에서 20%로 올리도록 할 예정이어서, 이후로는 가입자가 수령하는 보상금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험료와 혜택이 불리해지기 전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절판 마케팅의 논리다.

예전에도 비슷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보험사들은 절판 마케팅의 효과를 누려왔다. 삼성·현대·동부·한화·메리츠·LIG·롯데·흥국·MG·AIG 등 10개 손보사들의 실손의료보험 판매 건수는 지난해 11월 19만9000건에서 12월 40만6000건으로 훌쩍 뛰어올랐고, 다시 올해 2월 20만 건에서 3월 52만9000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판매가 늘어난 시기는 모두 금융당국에서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 비율을 올리겠다고 예고한 때와 겹친다.

25개 생명보험사의 신계약 실적도 지난해 11월 92만건에서 12월 118만7000건, 올해 1월 141만건으로 치솟았다. 2월 126만4000건을 판매한 생보사들은 3월에는 181만9000건을 팔았다. 특히 4월 예정이율 인하와 경험생명표 수정 등 보험료 조정 요인이 발생한다는 점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건드려 3월 실적이 치솟은 것으로 분석된다.

꼭 필요한 보험이라면, 혜택이 줄어들기 전에 서둘러 가입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절판 마케팅이 과열되면 판매 과정에서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상품에도 불필요하게 가입하는 피해가 생기고, 이는 보험사들의 불완전판매를 늘릴 수 있다는 점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영향을 받는지, 혹은 실제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꼼꼼히 따지고 가입해야 한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실제로 하반기 예정이율 인하에 따른 보험료 인상 효과는 15년 이상의 초장기 담보에 집중되고, 특히 보험기간이 길고 보험료가 비쌀수록 크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9월부터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비율이 오른다고 하지만, 이미 금융당국이 지난해 말과 4월로 두 차례나 예고하고도 미뤄진 데서 보이듯 실제 적용시점은 유동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기부담금의 경우는 당국이 시기를 명확히 하지 않은 탓에 의도치 않게 '절판 마케팅'이 이뤄진 셈이 됐다"며 "당국에서도 선불리 계획을 공개하기보다는 명확한 일정을 제시해야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분기 실질임금 비정규직 1.1%↓ 정규직 2.2%↑

근로자 임금 양극화 갈수록 심화

비정규직·일용직 등 임시직 근로자들이 손에 쥐는 월급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물론 명목임금까지 모두 뒷걸음질쳤다. 주로 정규직으로 이뤄진 상용직 근로자의 임금 상승 폭은 커져 '임금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모습이다.

지난 31일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임시직 근로자 실질임금은 월평균 128만8317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130만2376원)보다 1.1% 줄었다.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직과 일용직으로 구성된 임시직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작년에도 0.5% 줄었는데, 올해 들어 감소 폭이 더 커졌다.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직과 일용직으로 구성된 임시직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작년에도 0.5% 줄었는데, 올해 들어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연합뉴스

실질임금 상승률은 근로자가 손에 쥐는 명목임금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뺀 것으로, 근로자들의 실질적 구매력을 나타낸다. 임시직은 명목임금 상승률마저 마이너스다. 임시직의 지난 1분기 월평균 명목임금은 140만9032원으로 작년 1분기의 141만6464원보다 0.5% 줄었다.

임시직과 상용직의 임금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는 모습이다.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직 근로자 실질임금은 지난 1분기 월평균 323만7166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316만6114원)보다 2.2% 증가했다.

상용직 근로자 실질임금 상승률은 2012년 3.0%에서 2013년 2.5%, 작년 1.1%로 2년 연속 낮아졌으나, 올해 들어선 상황이 개선됐다. 상용직에는 정규직과 고용 기간 1년 이상 계약직이 포함된다. 상용직의 임금 상승에 힘입어 전체 근로자의 1분기 실질임금 평균은 306만8634원으로 1년 새 2.5% 올랐다.

실질임금은 보통 고물가일 때 낮아진다. 올해 1분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6%로, 저물가 기조가 이어졌는데도 임시직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낮아진 것은 질 낮은 일자리라도 구해보려는 취업 희망자들의 경쟁이 임금 상승을 가로막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성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 둔화 등으로 3~4년째 청년층, 고령층이 주로 취업하는 저임금 일자리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올해도 일용직 일자리가 증가세여서 고용의 질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연합뉴스

잠자고 있는 보험금 6638억 찾아가세요

보험사들 환원 서비스

금융당국이 휴면 금융재산 찾아주기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보험사들도 고객 휴면 보험금을 찾아주려는 움직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들은 휴면 보험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8일 '국민 체감 20대 금융 관행 개혁' 추진계획 중 하나로 휴면 재산 찾아주기를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휴면 보험금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기 되고서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나 환급금을 뜻한다. 각 보험사가 보유한 휴면 보험금은 주인을 찾지 못하면 미소금융재단에 출연돼 저소득층 복지기금으로 쓰인다.

금감원은 2014년 말 기준으로 휴면 보험금 규모가 6천63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고객이 찾아가지 않아 미소금융재단에 출연된 금액은 200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4220억원에 달했다.

각 보험사는 기존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고객 신뢰를 높이겠다는 차원에서 휴면 보험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라이나생명은 2003년부터 휴면 보험금 안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라이나생명 휴면 보험금 안내 서비스의 특징은 구체적인 목표치를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매달 휴면보험금 캠페인 대상 고객을 정해 휴면 보험금 지급 60% 이상을 목표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6월 증시 전망

코스피 조정 지지선 2070P 내외
화장품 등 주도업종 비중 늘릴 기회

김태현 상무
삼성증권 호남권역장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이 다시 불거졌다. 발단은 역시 옐런 의장의 발언이다. 올해 내 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약속 아닌 약속을 했다. 일단 Fed(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시장에 '통화정책 정상화'라는 화두를 던진 이상 당분간 시장은 지금보다 높아진 금리 환경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 국내시장의 가격조정은 높아지는 금리에 대한 적응 과정과 연초 이후 랠리를 펼친 업종에 대한 차익실현이 중첩되어 선제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하락을 주도했던 업종은 대부분 연초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업종이다. 반면에 화장품과 헬스케어 업종의 하락폭은 시장대비 크지 않았다. 아직 시장은 주도업종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 미국의 시장금리는 옐런 의장의 발언 이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최근 통화정책 정상화라는 화두를 던진 옐런 의장 발언에도 불구하고 금리 상승의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본다. 이것은 옐런 의장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주는 메시지를 금리 상승이 아닌 추가금리 하락을 제어하는 방어용으로 시장은 이해했다는 뜻이다.

이번 상황은 과거 버냉키 의장이 던졌던 2013년 5월 충격과는 사뭇 다른 매우 제한적 형태의 충격만 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코스피 조정의 1차 지지선은 60일선이 위치한 2070포인트 내외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증시의 펀더멘탈이 강화되고 있고, 정책 기대감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조정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주도업종에 대한 비중을 늘릴 기회로 삼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난 주 중국 본토 증시는 급락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1월 19일 중국 증감위의 신용제재조치 발표 후 상해증시 7.7% 조정 이래 두 번째로 큰 조정이었다. 중국 증시는 단기 오버슈팅 부담에 따른 조정국면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포트폴리오의 압축을 권고한다.

중국 증시 급락의 직접적인 원인은 중국 4개 증권사의 신용담보비율 상향조정(60% → 80%)과 금주 IPO 부담, 중앙회금(정부 산하 4대 국유은행 최대주주)의 5월26일 35억 위안 은행지분 매각 소식 보도였다. 증시 조정 요인 중 중앙회금의 은행지분 매각을 제외하면 새로운 것은 없다. 중국 증감회(CSRC)는 증시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꾸준히 신용거래규제, IPO 공급물량확대, 시세부정행위 감독강화를 진행해 온 바 있다. 5월28일 중국 증시 6.5% 급락의 본질은 '단기 중국 증시의 오버슈팅 부담'이다.

중국 주식 포트폴리오의 압축을 권고한다. 중국 증시는 단기 과열부담에 의해 추가적인 차익실현물량 출회가 예상된다. ▲증시의 단기 과열신호 발생 ▲지수흐름과 경기지표간 괴리 확대 ▲증권감독기관의 관리감독 강화가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근 급등 종목과 밸류에이션 매력이 감소한 종목중심으로 리스크 관리가 우선 필요하다. 유동성 랠리가 진행되는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속도'다. 경기회복이라는 펀더멘탈 요인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밸류에이션과 유동성 지표가 증시흐름의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당분간 1월 조정 사이클의 데자뷰(Dejavu)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국 증시는 연초 신용감독강화와 IPO 공급물량 확대정책에 따라서 2개월에 걸친 기간조정을 경험한 바 있다. 상해증시 기준, 향후 3개월 지수 밴드로 4200 ~ 5000포인트를 제시한다.

중기적 관점에서 이번 중국 본토증시 조정을 포트폴리오 확대 기회로 활용할 것을 권한다. 중국 증시의 중기적인 리레이팅 구조는 여전히 유효하다. 중국 주식시장의 할인 요인이었던 금융기관 잠재부실 및 과잉자본부담 완화 해소와 더불어 차이나 프리미엄 환경이 구축되고 있다. 상대적 밸류에이션 매력이 돋보이는 H증시 투자비중을 확대하고, 중기적 성장스토리를 보유한 기업에 대한 비중확대를 권한다. 내년 이후에는 경기회복과 기업수익 개선 사이클이 나타나면서 2 ~3년에 걸친 중기적 중국 증시의 리레이팅 구도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SAMSUNG 삼성증권

분양/임대

목포하당 랜드마크에 개원하실 원장님을 모십니다.
백년대로 기독병원 맞은편 최적의 중심상권에 위치!
아파트 배후세대가 6,000세대의 대단위아파트 조성!

층별	계약면적(㎡/평)	업 종	비 고
지하층	1,337(404)	주차장	
1층	1,000(302)	은행, 증권사, 약국, 커피숍	
2층	878(265)	은행, 병원, 커피숍	
3층	1,027(310)	병원, 업무시설	
4층	1,027(310)	병원, 업무시설	
5층	1,027(310)	병원, 업무시설	
6층	1,027(310)	병원, 업무시설	
7층	1,027(310)	병원, 업무시설	
8층	1,027(310)	병원, 업무시설	

※임대료3.3㎡당 27,000원 (1,2층별도문의) 관리비3.3㎡당 8,000원

SL빌딩 임대관리 010-2618-7234
건물주소 목포시 백년대로(상동)

투데이 경매

운암동 대단지아파트단지
공실 걱정없는 우수상권
지하1층~지상3층건물
학원, PC방, 독서실, 카페 추천
대지532㎡ 건물796㎡
감정가8억5천
최저가5억9천

운암동 공구의 거리 빌딩
6차선 대로변 입지최고
지하1층~지상5층건물
공구, 자재 업체 입점추천
대지220㎡ 건물605㎡
감정가7억4백
최저가4억9천

진월동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임대수익률 좋은 빌딩
병원, 학원 입지최고
지하1층~지상5층
대지845㎡ 건물1343㎡
감정가16억3천
최저가11억4천

첨단 상권최고 무인텔
1:1드라이브 인 방식
하루2~3회전가능 객실22개
대지1522㎡ 건물2000㎡
감정가34억5천
최저가24억2천

투데이옥션 이현석부장 010-9963-6345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산은캐피탈, 한국캐피탈, 전북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안이 없는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은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미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비용 無 ☑착수금 無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